

한국 현대시에 수용된 마르크 샤갈 그림*

김영태 시집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승훈 시집 『시집 샤갈』에 수용된 샤갈의 그림세계

윤호병
(천안대학교)

1. 문학과 예술의 비교와 그 중요성

오늘날 ‘국제비교문학회’에서의 연구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문학과 문학의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이론과 이론의 비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문학과 예술의 비교이다. 문학과 문학의 비교는 전통적으로 비교문학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문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영향과 수용의 측면에 역점을 둬으로써, 자료와 자료의 정리에 그치고 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위 문화적 강대국의 영향과 그것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용하게 되는 문화적 약소국간의 지배와 피지배구조로 인해서 문학간의 비교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국제비교문학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국제비교문학계의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학이론과 이론의 비교¹⁾

* 본 연구는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1) ‘국제비교문학회’(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에는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필자가 위원으로 활동(1994-2000)하고 있는 ‘문학이론 위원회’(Committee on Literary Theory)이다. 여기에는 10여 명의 위원이 있으며 현재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디제랄 카디르(Dijelal Kadir)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다. ‘문학이론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필자가 그동안 창안한 문학기론용어로는 ‘의견의 삽입’(interpolation)과 ‘글로벌컬리즘’(glocalism) 등이 있으며, 이들 용어는 문학기론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수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1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를린에서 각국에서의 ‘글로벌리즘 시대의 他 모더니티’를 주제로 하는 발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 대회에서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Korean Modernity: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Present”를 발표할 예정이며, 2002년 대회는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는 문학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새로운 이론의 창출로 비교문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학과 예술의 비교에서는 문학과 그림, 음악, 연극, 영화, 오페라, 건축의 비교 및 그 밖의 매스미디어 분야의 비교에 역점을 둠으로써, 문학과 예술의 경계선을 극복하고 지양하여 비교문학의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비교문학연구가 총체적 학문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윤호병 1994, 230-1).

비교문학의 이러한 연구경향의 하나인 시와 그림의 비교는 문학과 예술의 비교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편의 그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령 화가의 경향, 유파, 색채, 질감 및 주제가 시인의 미학적이고 지성적인 감성에 의해서 어떻게 시의 주제로 전이되었으며, 나아가 한국 현대시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국 비교문학계의 연구도 국제비교문학계의 연구에 상응되는 계기를 마련하리라고 생각된다.

2. 시에 의한 그림의 전이

시와 그림의 비교연구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① 그림의 언어가 시의 언어로 전이된 경우로, 정적인 그림의 언어를 동적인 시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시의 언어가 그림의 언어로 전이된 경우로, 동적인 시의 언어를 정적인 그림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적 언어’는 시의 언어가 그림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과정에 관계되고, ‘정적 언어’는 한 편의 시의 주제를 한 폭의 그림으로 집약시켜 놓은 것에 관계된다(윤호병 1998, 27-8).

시와 그림의 관계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시에서 샤갈의 그림이 어떻게 전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되, ① 김영태 시집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1965), ②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1969), ③ 이승훈 시집 『시집 샤갈』(1987)에 수용된 샤갈의 그림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샤갈의 그림과 한국 현대시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필자(1994, 283-95)의 「문학과 회화」,²⁾ 김효중(2000, 238-64)의 「한국 현대시에 수

2) 윤호병, 「문학과 회화」, 『비교문학』, pp.283-95. 그 외에도 필자의 다음 두 논문(1998, 24-

용된 샤갈 그림」 및 양왕용(1997, 285-90)의 「형이상학적 특질: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등이 있다.

2.1. 샤갈의 그림세계

장 폴랑은 샤갈의 그림세계를 다음과 같이 특징 지었다. “그는 아무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든 포렷하게 그린다. 그는 기쁨 때나 슬픔 때나 한결같다. 아니, 그보다는 그는 슬픔이나 상실감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다니엘 마르슈소 1999, 129)

샤갈의 이러한 그림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소에는 ① 일상적인 삶, ② 성서, ③ 화학구조와 수학구조의 통일성, ④ 스테인드글라스로부터의 영감과 개혁 등이 있다. ‘일상적인 삶’의 요소는 1928년 2월 시카고의 한 강연회에서 샤갈 자신이 언급한 “나의 그림세계는 꿈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라는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성서적’인 요소는 1956년 메예르 샤피로가 언급한 “샤갈의 연작그림 「성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현대 예술가의 한 명으로 꼽히는 샤갈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미술이 성서에 담긴 정신과 내용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이례적인 존재이기도 하다”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스테인드글라스로부터의 영감과 개혁은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모자이크에 이르기까지, 모자이크에서 테피스트리에 이르기까지 샤갈의 ‘거작’ 들의 노정”을 연구한 샤를 마르크의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샤갈은 자신의 그림세계에서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에서 출발하여 “형태의 융합을 피하는 큐비즘과 색채의 융합을 도모하는 오르피즘의 시각적 투영과 더불어 자신의 그림에 심적 투영”(윤호병 1994, 286-7)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큐비즘과 오르피즘을 근간으로 그는 자신의 그림에서 유태인 전통,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년시절의 체험을 한결 자유스럽게, 한결 대담하게, 한결 몽상적으로 그리고 있다”(게오르크 슈미트 1982, 102)고 볼 수 있다.

샤갈의 그림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이 시로 전이되었을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자신이 「야만인처럼, 「홀로인 것은 나의 것」같은 시를 쓴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교류하던 당대의 시인들, 예를 들면 기욤 아폴리네르, 블레즈 상드라르, 폴 엘뤼아르, 앙드레 프레노 같은 시인들이 자신들의 시를 그에게 현

45: 2000, 54-64) 참조.

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 시와 그림의 상관성에 대한 샤갈의 입장표명은 “모든 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림도 부분적으로는 신성한 영역에 속한다.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Read 1974, 128; Eiben 1957, 124)는 그 자신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김영태 시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에 전이된 샤갈의 그림세계

전5부로 이루어진 김영태 시집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⁴⁾에는 총2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3부 「CROQUIS」에는 다섯 편의 연작시가, 제5부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에는 세 편의 연작시가 수록되어서 총36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태 시집의 특징을 살펴본 후, 제5부를 중심으로 하여 샤갈의 그림세계가 어떻게 시로 전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태 시와 샤갈의 그림세계의 관계는 이들이 모두 화가라는 점 외에도 다음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샤갈을 좋아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친구들은 내 방을 샤갈의 집이라고 불러 주었다. 1957년부터 나는 내 방에서 시를 썼다.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시는 인간의 능력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만 우주를 비감성화 한다는 뿔 엘류아르의 얘기를 절대적으로 믿고 싶었다. 처음에 나는, 시는 회화라고 간주했었는데 요즘은 슈르 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김영태 1965, 114-5)

김영태의 이러한 언급을 정리하면, 그가 샤갈 그림에 심취했었다는 점, 시와 그림을 동일시한다는 점, 폴 알튀아르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점에서, 김영태와 샤갈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점은 화가로서의 샤갈 역시 시를 썼고 또 알튀아르가 샤갈에게 자신의 시를 헌정 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3) 샤갈과 당대 시인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마르슈소(142-5) 및 정문규(45) 참고.

4) 김영태의 이 시집에는 「便紙」의 ‘반 고흐’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림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음악, 음악가, 곡명의 활용에 관한 것: 「喪失」의 ‘바흐의 샤콘느’, ‘바흐의 PARTITA 2번’, ‘선율’, 「霧圍氣」의 ‘바흐의 무반주’, 「惡寒」의 ‘四季나 되는 숲의 비발디’, 「발라드」의 ‘쇼팽’, 「상승」의 ‘음악’, 「비의 實驗」의 ‘루빈슈타인’, 「期待」의 ‘녹턴’. ② 시의 본질탐구에 관한 것: 「實技」의 ‘시의 몸사리’, 「無題」의 ‘시는/ 밋밋한 산’. ③ 시인 자신의 객관화: 「RIEN」의 ‘또 하나 金榮泰가 앉아서 詩를 쓴다’. ④ 기존 작품의 패러디: 「純粹」의 ‘김춘수의 시’.

샤갈의 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김영태 시의 특징은 그것이 합성적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게 될 김춘수나 이승훈이 샤갈의 그림 한 편 한 편을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시로 전이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김영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데에 그 차이점이 있다. 그의 시의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샤갈, 「생일」(1915)

있는 시가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이다. 그의 시집과 동일한 제목의 이 시는 「誕生日에」, 「幼年詩」 그리고 「純愛」 등 총3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들 세 편의 그림과 시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총32행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시 「誕生日에」는 샤갈의 그림 「생일」(1915)⁵⁾을 연상시키는 시이다. “겨울이 발광한다/ 미쳐버린 하늘,/ 그리고 입속의 마지막 絶叫다”로 시작되어 “地球의 끝에서/ 브끄러운/ 해가/ 물을 끓인다”로 끝맺는 이 시의 중요한 시구와 그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시어 ‘그리스도’와 그림 ‘십자가의 수난」(1912),⁶⁾ ‘猶太人 女子’와 「母性」(1913),⁷⁾ ‘몽유병자의 바이어린’ 과 「죽음」

-
- 5) “1915년 7월 25일 샤갈이 결혼하기 10여일 전의 작품으로 흰 벽, 빨강 바닥, 장식적인 무늬, 인물의 유연성 등에 의해서 샤갈의 행복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마침 내 방의 창을 열었던 바로 그 때 푸른 공기와 사랑과 꽃들이 한꺼번에 거기에 덮쳐 왔다’라는 샤갈 자신의 말처럼,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이 약혼녀 벨라에게 고개를 돌려 입맞추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장문규, 14). 이후 샤갈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정문규의 이 책을 참고하였다.
- 6) 러시아 정교회의 성상화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수난을 그린 이 그림에는 어린아이로 묘사된 순교자 그리스도, 죽은 영혼을 배에 실어 황천 강을 건너게 해주는 뱃사공 카론, 사다리를 타고 도망치는 가론 유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모티프로 하는 샤갈 그림에는 나치치하의 유대인 처형을 그리스도 수난으로 전이시킨 「레지스탕스」(1937), 「백색의 그리스도 수난」(1938), 「순교자」(1940) 등이 있다.
- 7) 구름 낀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이 그림은 세속적 성모상에 해당한다. 만삭의 여자, 곧 태어날 아기, 왼쪽의 소년, 오른쪽의 성인 남자 등은 이 그림이 샤갈의 자전적 이야기라

(1908),⁸⁾ ‘露西亞의 당나귀’와 「러시아에게, 당나귀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1911),⁹⁾ ‘신음하는 時計’와 「피안 없는 시간」(1930),¹⁰⁾ ‘브끄러운/ 해’와 「아라비아안 나이트의 4가지 이야기를 위한 삽화」¹¹⁾를 들 수 있다.

② 두 번째 시 「幼年詩」는 총 32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청진동선지국집 온돌방에/ 어린 슬라브 騎士”의 ‘슬라브 騎士’는 그림 「동키호테」(1974)¹²⁾를, 중반부의 “聖經과/ 기운빠진 암소를 명증한다/ 구두속에 들은 新婦”에서부터 “순진한 말을 타고/ 어린 슬라브 騎士는... 손톱속에 돌아오는데”의 ‘聖經’과 ‘新婦’는 각각 그림 「화축」(1945)¹³⁾과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¹⁴⁾를, 후반부의 “우유가 가득 들은/ 사갈의 마을에는/ 목이 달아난 새가/ 푸수수 날아간다”의 ‘사갈의 마을’은 그림 「나와 마을」(1914)¹⁵⁾과 「농부의 생활」(1925)¹⁶⁾에 관계된다.

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8) 바이올리니스트가 지붕 위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그림으로 상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조응시키는 사갈 초기의 작품이다. 이 외에도 바이올린을 모티프로 하는 그림에는 「녹색의 바이올린 연주자」(1918), 「음악」(1921), 「천사의 추락」(1923), 「곡예사」(1943) 등이 있다.
- 9) 블라즈 상드라가 제목을 붙인 이 우의적인 그림은 밤하늘의 별, 유대인 공동체 마을, 러시아 정교회 및 가상적인 주제들을 모자이크한 것이다. 사갈의 그림세계에서 당나귀는 서커스에 관계되기도 하고 고향마을의 농부의 생활상에 관계되기도 한다. 당나귀가 등장하는 그림으로는 「나와 마을」(1911),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1912), 「푸른 서커스」(1924), 「농민의 생활」(1925), 「초록 눈의 집」(1944), 「설패와 마돈나」(1947), 「당나귀가 있는 에펠탑」(1953), 「바바를 위하여」(1955) 등이 있다.
- 10) 이 작품은 설 곳을 찾기 못한 채 추시계를 물고 끝없이 날아야 하는 청어의 운명에 의해서 유대인 박해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계를 모티프로 사용한 사갈 그림으로는 「곡예사」(1943) 등이 있다.
- 11) ‘페르시아의 교향곡’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자크 시프랭의 권유에 의해서 그렸으며, 이 그림의 관능미는 버지니아와 사갈의 관계를 암시한다.
- 12) 이 그림에서 동키호테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갈 자신을 암시하고 있다.
- 13) 전면의 짙푸른 색, 후면의 투명한 분홍색, 흰 드레스의 신부 및 선회하는 듯한 형상을 배치하고 있는 이 그림은 혼례를 주제로 하는 사갈의 전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14) “성경의 이야기를 판화로 만들 때...이스라엘에 가서 빛과 흙, 작품의 소재들을 발견했다. 메츠에서는 첫 스테인드글라스를 위한 돌이 있었다”고 사갈은 회고하였다(마르슈소, 126).
- 15) 이 그림에서 사갈은 러시아 유대인 마을에 대한 추억을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16) 「나와 마을」(1914)의 개작 판으로 평가되는 이 작품에는 프랑스적인 색채와 주제가 드러나

③ “燕尾服을 입은/ 어린 염소가”로 시작되어 “한 덩어리의/ 純潔이 날아간다”로 끝맺는 마지막 시 「純愛」는 총29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에서의 중요한 시어와 그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燕尾服’ 및 ‘純潔’과 「결혼식」(1910),¹⁷⁾ “七寶花冠을 쓴/ 아내가 날아간다”와 「산책」(1917),¹⁸⁾ ‘쌍 장의 人魚가 날아간다’와 「생 쥘의 태양」(1949)¹⁹⁾을 들 수 있다.

시와 그림의 이러한 상관성을 바탕으로 김영태가 「誕生日에」, 「幼年詩」 그리고 「純愛」 등 총3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 「猶太人이 사는 마을의 겨울」에서 모색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시는 회화라고 간주했었는데 요즈음은 슈르 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그의 언급처럼, 초현실 기법, 몽타주 기법, 콜라주 기법, 모자이크 기법에 의해서 샤갈의 그림세계를 종합적으로 자신의 시로 전이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전이에 의해서 그는 “겨울이 발광한다”, “氷原을 떠난 겨울 말들의/ 寒帶에도 첫 눈이 떨어질 때”, “청진동 선지국집 온돌방에”, “겨울날 새벽”, “불표煉炭工場” 같은 시 구절에 의해서 한국의 겨울과 샤갈이 살았던 러시아 유대인 마을을 동일시하게 한다. 아울러 탄생과 출발, 유년기의 기억, 사랑과 결혼이라는 시적 주제에 의해서 일상인의 삶의 근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인간관계의 중요보다는 화해를, 현실의 탐닉보다는 초월을, 주변세계의 집착보다는 관조를 위해서 샤갈의 그림세계를 자신의 시로 전이시켰다고 볼 수 있다.

2.3.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 전이된 샤갈의 그림세계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샤갈의 그림세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의 연구와 양왕용의 연구가 있다. 필자의 연구는 시에 의한 그림의 전이에 중점을 두었고, 양왕용의 연구는 시에 의한 그림의 전이중에서 이미지의 전이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

있다.

- 17) 비테부스크에서의 인생사를 엿볼 수 있는 이 그림에서 샤갈은 열정적인 색채, 확고부동한 구도에 의해서 러시아 유대인 특유의 결혼식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 18)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약탈과 파괴로 점철되는 고향하늘에 아내를 휘돌리는 이 그림은 샤갈 자신의 사랑의 찬가로 평가된다.
- 19) 「생쥘의 태양」에 대해 정문규(3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작품의 태양은 샤갈 특유의 새빨간 색으로 바다 위에 해바라기와도 같은 가장자리를 이루고 선명히 떠 있다. 한 여신이 남자의 얼굴을 받들고, 한 손으로는 태양을 붙들고 있다. 새로운 광명을 가져다주는 여신이라.”

로 하여 김춘수 시와 샤갈의 그림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靜脈이
바르르 펴나.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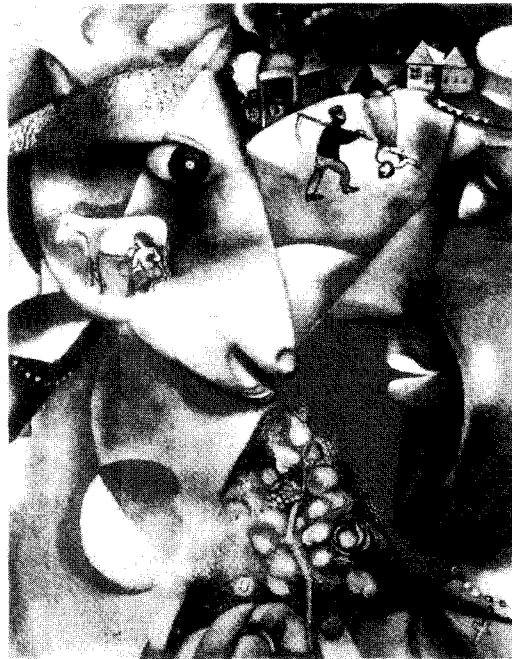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은 그가 파리에 와서 고갱의 원시적 생명력과 고희의 열정적 표현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입체파 기법과 화면분할 기법에 전념하던 시기에 그린 것이다. 그의 이 그림에는 원, 삼각형, 사각형을 바탕으로 하는 큐비즘 세계와 색채의 종합을 도모하는 오르피즘 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큐비즘 기법은 화면을 교차하여 지나가는 대각선, 전후좌우의 삼각형, 한 가운데의 원과 바로 아래의 작은 원, 왼쪽 염소의 눈과 입 및 오른쪽 사람의 눈과 입의 대응, 상단 부분 농부부부의 直立과 逆立에 의해서, 오르피즘 기법은 흑백, 청홍, 황녹 등의 색채의 대조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기법에 의한 샤갈의 이 그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가장 상징적인 유화 작품의 하나로 꼽히는 「나와 마을」은 화가의 오묘한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줄로 묶인 동물이 상징하고 있는 러시아 마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샤갈은 화면을 두 개의 대각선으로 구분하며 환유법에 의한 대조를 통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간과 동물(둘 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의 기이한 공존은 붉은 색과 푸른색의 대조로 더욱 두드러진다. 남녀 한 쌍의 모습을 살펴보면 풍요를 상징하

는 여인이 낮(죽음)을 들고 있는 농부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그림에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가득 들어 있다. 그림 아래쪽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달을 가리고 있는 태양 역시 부조화를 이루는 '초자연적'인 요소들로서 이 작품의 상징주의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다니엘 마르슈소 1999, 32)

이상과 같은 기법과 평가를 바탕으로 샤갈의 이 그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과거와 현재, ② 인간과 동물, ③ 신앙과 세속, ④ 고향과 타향, ⑤ 기도와 고통, ⑥ 추억과 현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핵심 축으로는 샤갈의 고향인 러시아 유대인 마을 비테부스크, 러시아 정교회의 신앙, 고향의 농촌생활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림 위쪽의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다섯 채의 농가, 정교회 건물과 정면을 응시하는 神父, 일터로 가는 농부부부, 왼쪽의 당나귀와 염소의 젖을 짜고 있는 여인, 오른쪽의 초록 빛 얼굴의 소년,²⁰⁾ 그 소년이 들고 있는 하단부분의 올리브나무, 당나귀의 목걸이 및 소년의 십자가 목걸이와 소년의 손가락에 끼인 반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과거와 현재, 聖과 俗을 넘나드는 샤갈의 상상력을 종합하고 있는 부분이 그림 중앙의 大圓이며, 이 원 속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있다. “총체적인 서정성의 폭발”이라는 앙드레 브르통의 언급처럼, 때로는 유치하게 느껴



샤갈, 「나와 마을」(1914)

20) 정문규의 설명에 의하면, 초록 빛 얼굴의 소년은 「일곱 손가락의 자화상」처럼 물리적인 중심과는 다른 중심을 가진 새로운 세계에 상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는 현란한 색채를 바탕으로 샤갈은 “큐비즘의 영향으로 공간을 동시성을 지닌 여러 부분으로 분할할 뿐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을 배치시킬 수 있게”(다니엘 마르슈소, 33) 된 것으로 보인다. “나의 그림들은 내가 지닌 내면의 이미지를 늘어놓은 것이다”라는 샤갈 자신의 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샤갈 그림에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들이 김춘수 시에서는 일종의 신비성으로 전이되어 있다. 그러한 신비성은 “3월에 눈이 온다”에 집약되어 있다. 왜냐하면 3월은 뒤이어지는 ‘바르르 떠다’, ‘바르르 떠는’, ‘새로 돋은’ 같은 시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생명의 약동에 의해서 봄의 시작에 관계되지만,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3월은 또한 봄을 겨울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3월에 내리는 눈’은 그림의 올리브가지, 잎과 열매 및 그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흰 점들을 ‘눈’이라는 시어로 전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내 집에는 사투리로 망개라고 부르는 열매...그것의 빛깔이 올리브빛이었다...그것과 샤갈 그림에서의 이미지가 오버랩하였는지도 모른다”라는 김춘수의 언급(1986, 97)과 같이, “취풍만한 열매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인식에 관계된다. 그것이 과거에 관계될 때는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로 이어지고, 그것이 현재에 관계될 때는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를 이어받게 된다. 여기서 ‘아낙들’, ‘아궁이’ 및 ‘불’은 과거의 기억을, ‘사나이’는 현재의 인식을 의미하게 된다. 김춘수 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 기억과 인식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샤갈 그림에서의 이러한 요소들을 전이시킨 결과이며, 그것을 집약시키고 있는 시구가 ‘샤갈의 마을’이다. 김춘수 시에서 제1연의 첫 행과 마지막 행, 제2연의 두 번째 행에 사용된 ‘샤갈의 마을’은 표면적으로는 샤갈 그림 「나와 마을」에 암시되어 있는 화가의 고향인 러시아 유대인 마을 비테부스크를 의미하고, 이면적으로는 시인 자신의 고향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서는 샤갈 그림 「나와 마을」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의 언어를 시의 언어로 전이시키되, 러시아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한국적인 분위기로 전이시켜 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언어에 대한 치밀한 전이라기보다는 “나는 반쯤 졸음에 취한 기분으로 언젠가 본 샤갈의 「마을」이라는 畵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머릿속을 한 순간 「샤갈의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갔다...이리하여 샤갈에 이끌리어 이 시는 씌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그 자신의 말(같은 책, 96)처럼 그림에 대한 기억 속의 殘像을 바

탕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4. 이승훈 시집 『시집 샤갈』에 전이된 샤갈 그림세계

『시집 샤갈』(1987)에는 총6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샤갈 그림을 대상으로 했거나 동기로 한 신작”시로 나뉘어진다. 샤갈 그림을 자신의 시로 전이시키는 데 있어서 이승훈은 김영태 시 「猶太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로부터는 “샤갈은 누구이며, 도대체 그가 산 마을은 어디이며,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그림을 그린 화가인가”라는 탐구정신을 가지게 되었고, 김춘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으로부터는 “신뜻하면서도 춥지 않은 삶...샤갈 그림을 모티프로...곱고 아름답고 따뜻한 시”라는 평가정신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그림을 시로 전이시키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삶의 양식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와 “시의 새로운 스타일을...잡아보려는 의도”²¹⁾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승훈의 언급처럼 그의 시집에서 샤갈 그림을 대상으로 한 시는 「마을 위의 연인들」에서부터 「통곡의 벽까지」 30여 편이고, 나머지는 그림이 동기가 된 시에 해당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전자이며, 그 주제는 ① 사랑, ② 농민, ③ 시간으로 나뉘어진다. 그 외에도 서커스를 주제로 한 시편이 있다.

샤갈 그림을 자신의 시로 전이시키는 데 있어서 이승훈이 의도했던 ‘다른 삶의 양식’과 ‘새로운 스타일의 시’의 시도를 드러내는 시가 「옆으로 누운 시인」으로, 이 시의 전문은 “리라 색은 내 사랑/ 파아란 하늘의 눈물// 오늘도 기인/ 어둠의 터널을 뚫고// 달려오는 천국의/ 따뜻한 바람”으로 되어 있다. 샤갈 그림 「옆으로 누운 시인」을 전이시킨 이 시에서 ‘파아란 하늘의 눈물’은 그림의 분홍빛 황혼, 곧 하루가 저무는 하늘의 빛깔이며 그것이 바로 ‘리라 색’이자 ‘사랑’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한 사랑은 시 「에펠 탑 부부」의 “만지면 꽃이 되는/ 삶”, 시 「화촉」의 “풀밭의 애무”, 시 「바바를 위하여」의 “그대 곁에 잠들리”, 시 「약혼자들」의 “천사여 빠알간 날개를 단 천사여”, 시 「남자와 여자」의 “끓주린 가슴/ 외로운 갈망”, 시 「달빛 속의 연인들」의 “어째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가”, 시 「산책」의 “오늘도 푸른 눈이/ 나를 삼킨다”, 시 「탄생일」의 “나는 빠알간 꽃이 된다”, 시 「몽상」의 “모두가 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로 이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그의 시로 전이된 그림의 언어들은 대부분 지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그것은 그가 그 동안 추구해오던 모더니스

21) 이에 대해서는 그의 시집 『시집 샤갈』에 수록된 「샤갈과 나」(112-21)를 참고.



샤갈, 「농민의 생활」(1925)

트로서의 기질과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삶의 양식’이자 ‘새로운 스타일의 시’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편들이 그림에 대한 순간의 인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샤갈 그림 「농민의 생활」(1925)을 시로 전이시킨 「농민의 생활」은 그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샤갈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 구분 없이 총 29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짧은 시행과 긴 형식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의 명제는 제2, 제4, 제6, 제10, 제27행에서 다섯 번 반복되는 “나는 너를 두고 떠난다”이다. 비테

부스크는 샤갈이 태어난 러시아 유대인 마을이며, 이승훈 시에서 다섯 번 반복되는 “나는 너를 두고 떠난다”는 샤갈의 「자서전」에 나오는 “나는 너를 두고 떠난다”를 그대로 패러디한 것이다. 이 구절은 ‘비테부스크’, ‘비테부스크의 마을’, ‘말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로 시적 대상이 구체화되는 처음 여섯 행에서 강도 높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성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샤갈의 심정을 대변한다.²²⁾

1914년 파리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그린 그의 그림 「농부의 생활」(1914)은 「나와 마을」의 ‘프랑스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명랑한 분위기와 밝은 색조의 배경처리는 그가 파리에서의 행복만큼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기억 또한 행복한 것으로 추억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그림의 언어는 비유나 상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의 언어로 전이되어 있다.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의 언어는 시의 전반부 제7, 8, 9행의

22) “1910년 8월 10일 몇 달 전부터 샤갈의 후원자가 된 막심 베나베르는 1914년 그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장학금을 주기로 한다. 그래서 샤갈은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향하게 된다”(마르수소, 23).

‘하얀 말’, ‘푸른 먹이’와 ‘남자의 모자’와 일치하며, 이는 다시 시의 중반부 제11, 12행에서 ‘하얀 말의 눈’과 ‘웃고 있는 농부’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점은 그림의 ‘주막’ 역시 시에서 제13행 ‘떠나면 주막’, 제14행 ‘붉은 주막’, 제15행 ‘붉고 조그마한 주막’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뒤이어지는 제16행에서부터 제22행까지는 전면의 농부와는 달리 작은 모습으로 그려진 주막 앞 의자의 이웃들, ‘마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젊은이들’로 시적 자아의 視線 역시 近景에서 遠景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감싸고 있는 그림의 파란 하늘이 시에서는 ‘추억’이자 ‘불타는 파아란 꿈’으로 전이되어 있다. 여기서 추억은 물론 샤갈에게 있어서 비테부스크의 추억이며 그것이 ‘불타는 파아란 꿈’인 까닭은 화가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유년기의 추억과 파리에서의 생활이 병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병치는 제23행의 “그리고 추억이어”와 제24행의 “그리고 불타는 파아란 꿈이어”에서 두 번 반복되는 ‘그리고’이며, 전자는 과거의 추억에 관계되고 후자는 현재의 파리 생활에 관계된다.

제25행 “나는 귀를 자르지는 않겠지만”은 샤갈이 고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암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그림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암시한다. 그 결과 마지막 부분인 제26행에는 “비테부스크여 오늘/ 나는 너를 두고 떠난다/ 떠난다는 건/ 삶의 조건이기에”로 단호하게 끝맺고 있다. 샤갈의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시구에서 ‘오늘’이나 ‘삶의 조건’은 고향을 떠나올 때 그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승훈 시 「농민의 생활」에는 샤갈의 대부분의 그림에 내포되어 있는 동물과 인간, 과거와 현재의 친밀성과 친화력이 배제되어 있다.

그림 「끝없는 시간의 흐름」을 시로 전이시킨 「끝없는 시간의 흐름」(혹은 ‘彼岸 없는 시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칠 줄 모르고 커 오르는 시계가 보인다. 지칠 줄 모르고 학대받는 마을이 보인다. 불안한 나날, 너와 나의 인내가 보인다. 피를 흘리는 청어. 대낮이면 더욱 성장하는 상처도 보인다.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해야 하는 인간들이 보인다. 모든 물질의 내부에서 냉혹하게 흐르는 강물이 보인다.(인용된 시집 중 「끝없는 시간의 흐름」, 48)

이승훈의 위 시 역시 샤갈의 그림의 주제를 충실하게 전이시키고 있다. ‘시간은 피안이 없는 강이다’라고도 불리는 이 그림에서 샤갈은 막스 에른스트나 르네 마그리트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구사하던 ‘이미지의 뜻밖의 병렬’을 보여준다. 그의

畫題는 고대 로마시인 오비디우스의 암울한 느낌의 詩題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투성이 날개 짓을 하며 바이올린을 물고 끊임없이 날아야 하는 청어, 비상하는 시계, 정지된 강, 遠景의 鳥瞰圖로 처리된 비테부스크 마을, 포옹하고 있는 연인들(다니엘 마르슈소, 82)은 러시아 공산혁명과 나치점령 하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인 삶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그림의 언어가 시의 언어에서는 '지칠 줄 모르고', '학대받는 마을', '피를 흘리는 청어', '사랑해야 하는 인간들', '냉혹하게 흐르는 강물' 등으로 전이되어 있으며, 시어 '불안한 나날'은 이 모두를 종합하고 있다. 이 시어에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에 대한 향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및 유년기의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상처투성이의 날개로 마땅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부단하게 날아가야만 하는 청어로 대변되는 유대인의 流浪이 집약되어 있다.

그림의 언어를 자신의 시의 언어로 전이시키는 데 있어서 이승훈은 초현실주의 기법에 해당하는 몽타주, 콜라주, 병치 혹은 병렬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샤갈의 그림을 분석하되, 총괄적인 방법과 개별적인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3. 현대시에 전이된 샤갈의 그림세계

지금까지 필자는 김영태, 김춘수 및 이승훈의 시로 전이된 샤갈의 그림세계를 살펴 보았다. 이들 시 세계의 공통점은 모두가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각자가 샤갈의 그림세계를 자신들의 시로 전이시키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김영태의 경우는 샤갈의 그림세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읽기를 근간으로 하여 그것을 자신의 시어로 전이시키는 데 있어서 주로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샤갈의 그림세계가 지니는 개별적인 언어보다는 총체적인 언어를 시의 언어로 전이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를 읽어내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샤갈 그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 그의 시에 전이되어 있는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마을」이라는 샤갈의 그림 한 편만을 자신의 시로 전이시킨 김춘수의 경우는 그림의 언어와 시의 언어가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대인 마을과 한국의 시골마을이 병치되어 있다. 그의 시 기법에서 하나의 특징인 병치기법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서 러시아와 한국에서의 어머니의 모습, 고향 및 그 기억의 아름다움을 감정이 배제된 시어로 형상화하였다.

‘이 시대의 모더니스트’로 평가되는 이승훈 시에는 샤갈의 그림의 언어가 다양한 시어로 전이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랑, 농촌, 시간이며, 이들 시적 주제에 의해서 그는 유대인으로 표상되는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주로 초현실 기법에 의해서 시의 언어로 전이시키고 있다.

샤갈의 그림세계를 한국 현대시로 전이시킨 방법 중에서 김영태, 김춘수 및 이승훈의 경우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들과는 다른 시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시인들의 경우 및 세계 시인들의 경우에는 샤갈의 그림세계가 어떻게 시의 언어로 전이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연구 또한 중요하다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연구하여 이를 다시 본고의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 인용문헌

- 게오르크 슈미트. 『근대회화소사』. 김윤수 역. 서울: 일조각, 1982.
- 김영태. 『유태인이 사는 마을의 겨울』. 서울: 중앙문화사, 1965.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시와 시인의 말』. 서정주 외. 서울: 창우사, 1986.
- 김효중. 『한국현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서울: 푸른 사상사, 2000
- 다니엘 마르슈소. 『샤갈: 몽상의 은유』. 김양미 역. 서울: 시공사, 1999.
- 양왕용. 『현대시교육론』. 서울: 삼지원, 1997.
- 윤호병. 『비교문학』. 서울: 민음사, 1994.
- _____. 「시에 의한 그림의 전이」. 『비교문학』 23집 (1998).
- _____. 「언어의 아이콘: 그림의 언어와 시의 언어」. 『시안』 8호 (2000, 여름호).
- 이승훈. 『시집 샤갈』. 서울: 탐출판사, 1987.
- 정문규. 『샤갈』. 서울: 서문당, 1994.
- Hermerén, Göran. *Influence in Art an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 Read, Herbert.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London: Thames and Hudson, 1974.
- Remak, Henry. H. H. “Comparative Literature: Its Definition and Function.” *Comparative Literature: Method & Perspective*. ed. P. Stallknecht and Horst Frenz. New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1.

[Abstract]

Mark Chagall's Paintings
Transferred into Contemporary Korean Poems:
Youngtae Kim's Anthology, *Winter in the Village of Jews*,
Chunsoo Kim's "Snow Falling on the Village of Chagall,"
and Sunghun Lee's Anthology, *Poetic Anthology of Chagall*

Ho-Byeong Yoon
(Cheonan University)

In his discussion of some desirable turning points in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Henry H. H. Remark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iterary approach to other forms of art.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such a method of comparative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focusses on three contemporary Korean poets who have transferred Mark Chagall's paintings into their poetry: Youngtae Kim, Chunsoo Kim, and Sunghun Lee. They are usually evaluated as surrealist/modernist in our literary circles.

In transforming Chagall's paintings into his poems, Youngtae Kim has incorporated a variety of surrealist mosaic techniques such as montage and collage. The resultant peculiarity of his poetry makes it hard to lay bare the correspondence or similarities between his poetic world and the world of Chagall's artistry. It is nonetheless possible to see how Kim, as a poet and painter, had interpreted Chagall's world with a bird's-eye view of it.

Chunsoo Kim's "Snow Falling on the Village of Chagall" relates specially to one of Chagall's paintings, "I and My Village." The present study has taken notice of this correlation in sorting out some basic elements of poetic transfiguration. One of the techniques employed in the poem under discussion is that of juxtaposing the Russian village of Chagall and the Korean village the poet visualizes, with the effect of putting two national traditions in contrast. A reading of the poem reveals that it is not so much the result of a detailed analysis of the painting as a revival of its lingering impression as a whole.

In Sunhun Lee's poetry, surrealist techniques are again a hallmark. But his method of transferring the images of the paintings into his poems falls somewhere between those of Youngtae Kim's and Chunsoo Kim's: it is akin to the 'bird's-eye method' of the former and shares the impressionistic touch with the latter, but at the same time Lee is analytical by disposition and opts for concrete descriptions. 'Love,' 'farm,' and 'time' are the keywords that are brought under discussion in the present study.

There is a growing demand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ry studies for broadening the area of comparative literature. This study hopes to be a small contribution to endorsing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approach to fine arts.